

손학규 진퇴에 바른미래 의총 '아수라장'

옹호-퇴진파 나뉘어 정면 충돌... '결별수순' 밝나 당원권 정지 이연주의원 의총장 진입에 몸싸움도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손학규 옹호와 퇴진파 간 고성인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양측 간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특히 손 대표가 최근 내세운 '제3지대론'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증폭되면서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은 손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손 대표를 감싸며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맞받았다.

원내 지도부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시작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지상욱 의원은 "언제부터 비공개로 의총을 했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의총에 참석한 다수 의원에 따르면, 손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당 혼란에 죄송하다. 여러 정책개편설이 있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신당 창당설과 관련,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을 예상한 듯 서둘러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러나 이연주 의원은 손 대표에게 "즉각 당 대표직을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 의원도 "(호남신당 창당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손

대표와 박주선 의원은 각성하라"며 가세했다.

이에 "대표를 흔드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박주선 의원), "이연주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 참관만 허락한다"(김관영 원내대표), "이연주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임재훈 의원) 등 손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의원들의 맞공이 이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연주 의원은 의총장 진입을 막는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손 대표에 대

한 막말 논란으로 최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는 의총 시작 후 1시간이 넘도록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는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과 잠정적으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이날 의총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다. /서울=강병운 기자



유승민 의원 바라보는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리핑

5·18 유공자 서훈 촉구 토론회

천정배·최경환 의원 주최 오늘 국회서 열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울)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관련 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천정배, 최경환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리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토론회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5·18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김재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천 의원은 자료집에 게재한 인사말을 통해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윤소하, 시민단체와 토론회 공동 개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 바른정당 채이배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공동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후농 김상현 전 국회의원의 1주기 추모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가족과 문화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후농 고 김상현 의원 1주기 추모식

문화상 등 정계인사 대거 참석

후농 김상현 전 국회의원의 1주기 추모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전 의원의 아들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 유가족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권노갑 전 의원과 정대철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화상 국회의장은 "시인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생에게 무경이라는 호를 지어 줬다. '경계가 없다'는 뜻이었다"며 "대화하와 타협을 중시했던 김상현 선생의 정치인 정신을 기리고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식 이후에는 경기도 파주시 나자렛 묘원에서 함세웅 신부의 집전으로 추모 미사가 진행됐다.

'이미션' 헌법재판관 임명 임박 대립 절정

한국당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결사반대

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임박한 18일 여야 대립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한판 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 중대 흠결이 없다'는 여권과 '이 후보자 결사반대'에 나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충돌하며 교착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청와대가 정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권의 반발 강도는 더욱 강해져 여야 대치에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가 파행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송부 시

한이 이날인 만큼 여야 이견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9일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석과 다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 반대에 더해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이날도 여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내 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이미션을 넘고 등을 돌렸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꺾어서 일방독주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

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이 보이콧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오늘 오후에 열리는 법사위 회의를 성사시키려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한 채 열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상가 (금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23평 (주거, 사무실 가능 / 방2개 가능)
- 올 리모델링 완료

**시세 1억3천
매가 8천500만 (용3천만)**

장성 토지매매

- 장성호(담) 2분거리 장성호 (유원지 개발예정) (출렁다리 관광지개선)
- 국도 2차선 도로점 (장성 JC 하남대로 이용시 상무지구에서 15분)

1) 장성을 백계리 → (363평) 1억 1천만
2) 장성을 안평리 → (523평) 1억 6천만
3) 장성군 동화면 → (514평) 1억 3천만
4) 장성군 동화면 → (517평) 1억 2천 5백만
5) 광주 서구 서창동 → (196평) 5억 4,800만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매가 8억 6천만
(용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법률경매

대신경매

- ★ 경매교육 (매주개강) ★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특별실전반 (특수) (개발·유치권·지분·법정지상권·특수물권)
- ③ 컨설팅 전문반 (책상 컴퓨터 무료제공 - 주 1회 물건분석)

상가건물/근린주택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문흥동 (7층 중 6층 상가) 전용 - 226평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상업지 모든업종 가능 ▶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4억2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1천 2. 광산구 우산동 (4층중2층) (전용 121평) ▶ 감평가 14억 → 최저가 6억3천 3. 광산구 송정동 (주택) 광산구청 바로 앞 ▶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4. 광산구 운남동 마트 (아파트 상가) 토 74평 건 117평 ▶ 감평가 3억4천 → 최저가 2억3천 5.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6. 서구 치평동 (대우금호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7백 7. 서구 풍암동 (신암마사해안) (32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5백 8. 서구 금호동 (일신아파트) (42평) ▶ 감평가 2억6천6백 → 최저가 1억8천6백

062-382-5500 010-6670-9800